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 청사거리에서 열린 출근길 유세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을 찾아 지지자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광주 광산갑 후보와 박병석 복구를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

4·10 총선 D-9 제3지대도 한표 호소...지지를 올리기 총력전

**‘제주행’ 녹색정의당 · ‘광주행’ 새로운미래
 광주 온 조국 “윤석열 · 김건희 · 한동훈 범죄자 연대”
 이원욱 지원 개혁신당...이준석 · 양향자 각각 유세**

4·10 총선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3지대 정당들은 수도권과 호남 등 전국 각지를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를 찾아 강순아 제주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심판”이라며 “어떤 심판이나, 누가, 어떻게 심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들이 하나가 정권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과 기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당은 녹색정의당뿐”이라며 “강순아 후보가 앞장서서 명백히 꿋꿋이 제주도를 살리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대선 후보 당시 약속을 순박단 뒤

집듯이 어기고 4.3 추념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녹색정의당이 확실하게 심판하겠다”고 외쳤다.
 새로운미래의 총선을 지휘하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정형호(광산갑), 이낙연(광산을), 박병석(복구을) 후보를 지원사격한 뒤 인천 부평을을 이동해 홍영표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오 위원장은 “권력을 마구 남용하는 나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제1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덮아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성과 한 번 내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들께 갈등과 보복만 남은 선거를 강요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함께 유세에 나선 이낙연 후보도 “광주가 민주성지에 맞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묻지마 투표’는 이제 졸업하고 ‘따져보고’ 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맨날 피나 쓰고 독한 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관치는 그런 광주를 원치 않으신다면 새로운미래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주영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화성정을 찾아 자당 이원욱 후보 유세 지지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화성 시민들 눈치만 보고 제대로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3선 이원욱 후보는 쉽지 않은 개혁의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준석(화성을), 양향자(용인갑) 후보는 각자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했다.

이들 정당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군산과 익산, 광주, 여수 등 호남권을 찾아 표밭을 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원한 ‘범죄자 연대’는 윤석열 · 김건희 · 한동훈”이라며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겸 민주당 중앙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광주를 찾아 “무비전 국정운영을 막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대 · 조선대 의대 교수 280여명 사직서 제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가 떠난 광주 상급종합병원 일선을 지켜온 전남대 · 조선대 의대 교수 28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교수 400여 명(병원인상 교수 · 해외 연수자 포함) 중 55%에 해당하는 22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찌감치 비대위를 결성한 조선대 의대에서도 전체 교수 161명 중 68명(42%)이 사직서를 냈다.
 전남대 ·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기 다음달 1일과 2일 교수회의를 열어 최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일단 취합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다시 조율키로 했다.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공중보건의 · 군의관을 2차 투입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월 1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파견 · 배치된 군의관 · 공보의가 총 11명이다. 조선대병원도 25일 처음 파견 인력을 지원 받았다. /조선주 기자

광주 · 전남 투표소 1164곳, 안내문 · 선거공보 발송

투표소 광주 358 · 전남 806곳...거소투표용지도 발송
 광주 · 전남 선관위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1164곳을 확정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투표소는 358곳, 전남은 806곳이다.
 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

과 정당 ·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거소투표 신고자 광주 2000여 명, 전남 527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도 함께 발송했다.
 선관위는 어르신 · 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

강기 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 확보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 · 공약과 재산 · 병역사항 · 세금납부 ·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호 기자

DJ센터 제2전시장 재추진	2면
5·18 조사위 결과 공개	3면
고물가 이어지나	4면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으며 보자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2024 광도 강변수산물 축제
 2024. 5. 3. (금) ~ 5. 6. (일) | 4일간 |
 완도해변공원 일원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
 주최 | 완도군 주관 | 광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